이차전지

Sector Issue Brief 2026. 3. 5

Check Point

- 1월 xEV 판매 YoY -2.1%
- 1월 xEV 배터리 판매 YoY +10.8%
- 국내 셀 3사 점유율 하락

월별 EV 배터리 1월 모니터

| Analyst **정경희** | khchung@ls-sec.co.kr

1월 xEV(BEV+PHEV) 판매 YoY -2.1%

1월 한달간 글로벌 xEV(BEV+PHEV) 차량 판매는 122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 지역별로 보면 중국 -16.4%, 미국 -30.6%, 유럽 19.5%, 기타 지역 79.9%를 기록하며, 미국과 중국 시장 판매 감소가 전체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중국의 경우 전기차 구매세 도입 및 보조금 축소 등 정책 변화와 함께, 연말 보조금 종료 이전 선구매 영향으로 연초 수요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북미 시장 역시 미국의 세액 공제 일몰로 예상대로 xEV 판매 감소. 반면 유럽은 환경 규제 대응과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전년비 약 19.5% 증가. 기타 지역은 79.9% 증가하였으나 시장 비중이 낮아 전체 감소폭을 일부 완화하는데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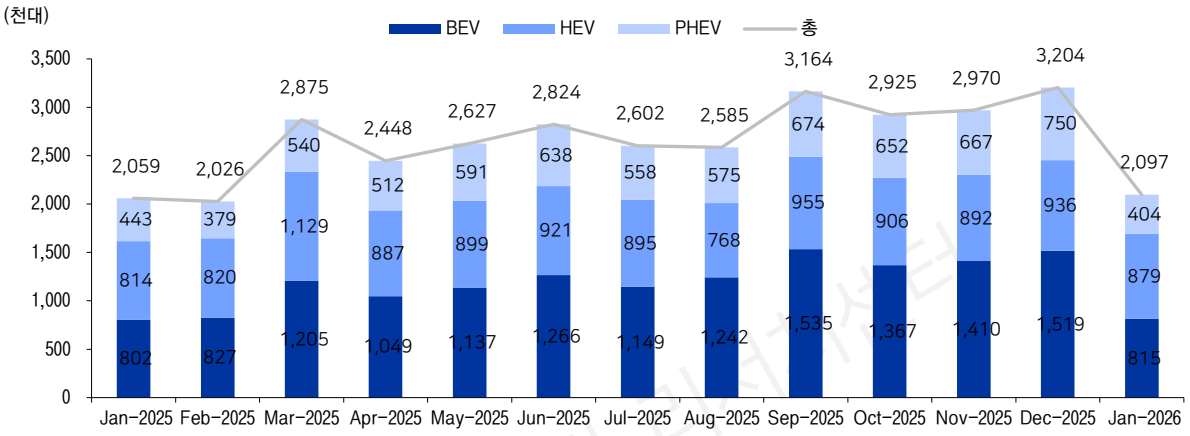
1월 EV향 배터리 탑재 YoY +10.8%,

1월 한달간 글로벌 xEV향 배터리 규모는 71.9GWh로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 지역별로 보면 중국 8.4%, 미국 -29.0%, 유럽 13.4%, 기타지역 0.8%을 기록. 중국의 높은 BEV 비중, 유럽 전기차 판매 확대가 글로벌 배터리 수요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 배터리 타입별 사용량은 원통형 4.7Gwh, 파우치 7.3GWh, 각형 59.8GW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원통형 -5.9%, 파우치 -17.2%, 각형 17.2% 기록, 원통형과 파우치의 M/S 감소, 각형 M/S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국내 셀3사중 각형 타입은 삼성SDI만 생산하는 점에 비추어 타입별 판매에서 한국 셀사에 다소 부정적인 시장 상황 지속

OEM 판매 영향으로 국내 셀 3사 점유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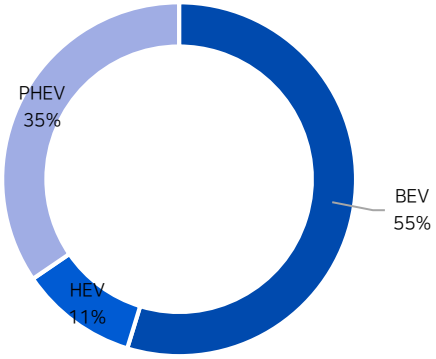
글로벌 Top 10 배터리 셀사 2026년 1월 M/S는 LG에너지솔루션 6.6%, SK On 3.2%, 삼성SDI 2.2%로, 각각 -2.0%p, -1.3%p, -1.0%p 하락, M/S 하락세 이어가. Top 10 셀사 중 BYD 및 한국 3사를 제외한 기타 중국 셀사들의 M/S 상승. 한국 3사 M/S 변화에는 글로벌 배터리 국별 비중에서 높은 중국 시장 진입이 낮고,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3사의 북미·유럽 비중 감안하면 미국 시장 -30.6% xEV 판매량 변화 영향 커. 중국 배터리 업체의 점유율 확대 역시 국내 셀3사의 점유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

그림1 글로벌 EV 타 월별 판매량 추이('25 년 1 월~'26 년 1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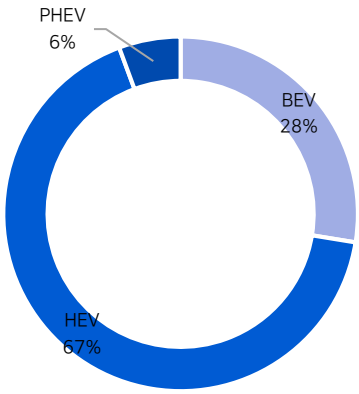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전기차 판매량 타입별 비중(중국, '26 년 1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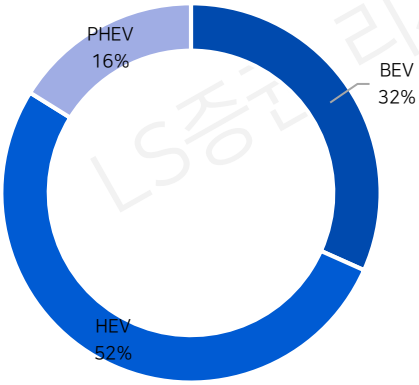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전기차 판매량 타입별 비중(미국, '26 년 1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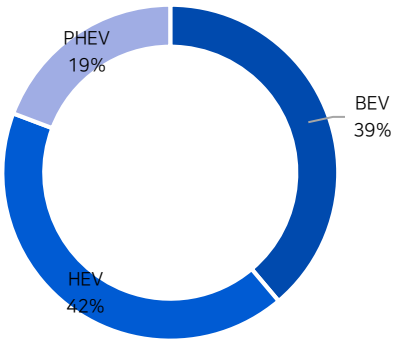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전기차 판매량 타입별 비중(유럽, '26 년 1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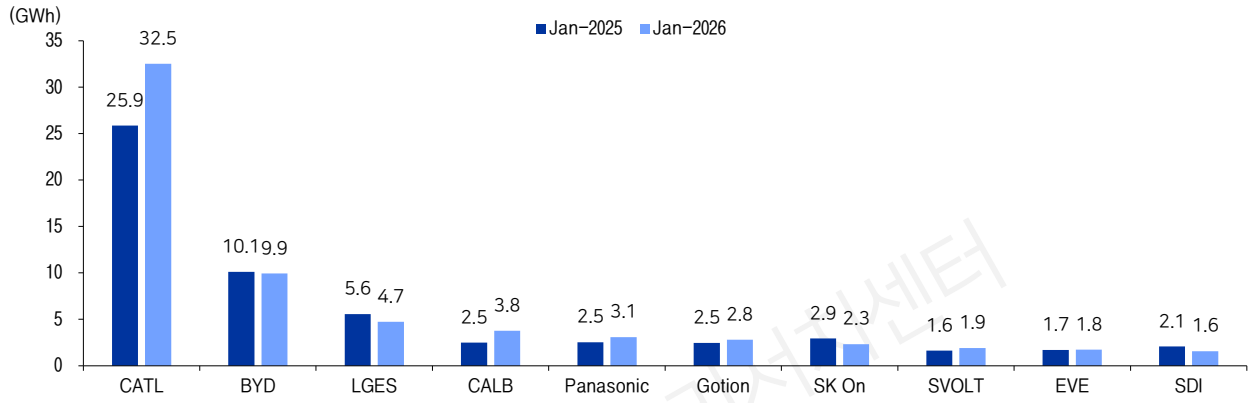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전기차 판매량 타입별 비중(글로벌, '26 년 1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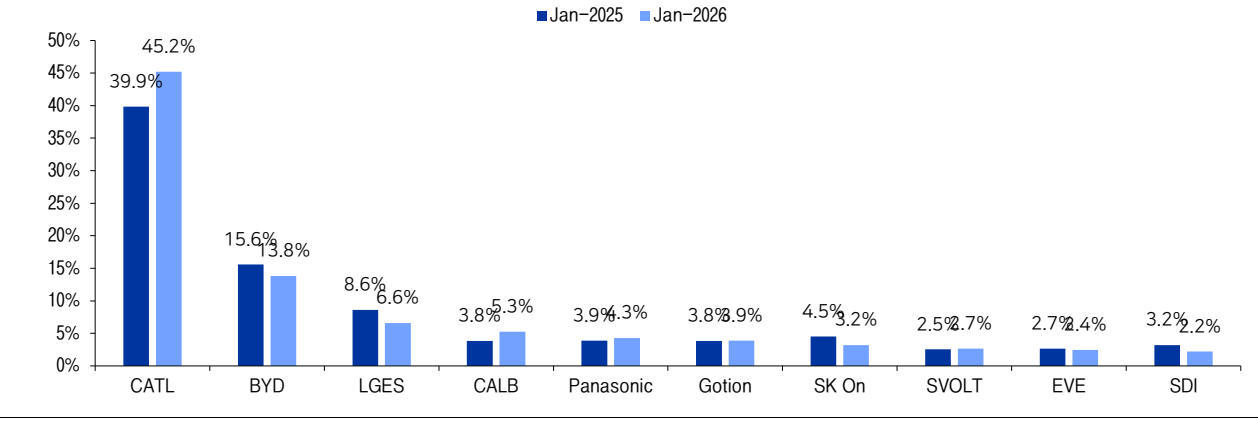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글로벌 EV 배터리 Top 10 공급량('25년 1월 및 '26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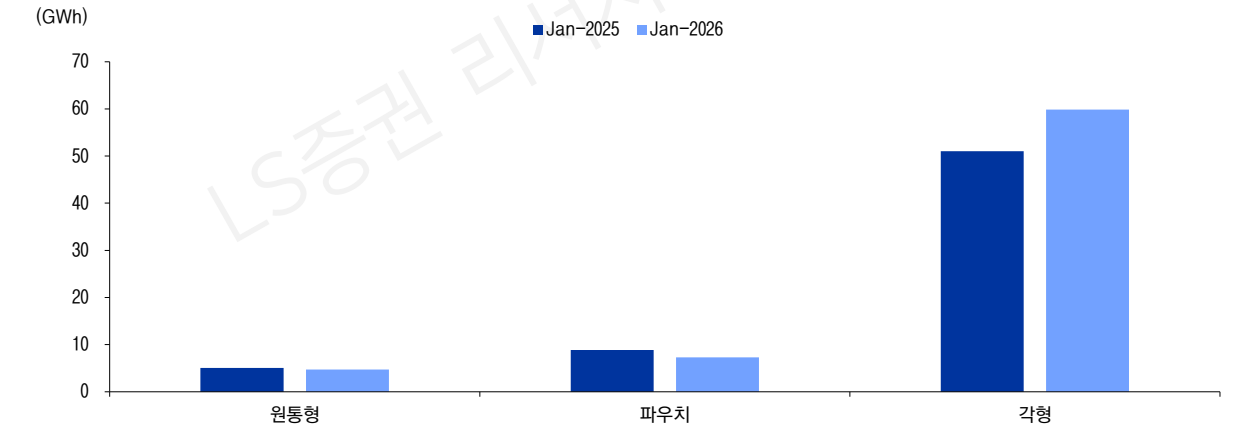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글로벌 EV 배터리 Top 10 M/S('25년 1월 및 '26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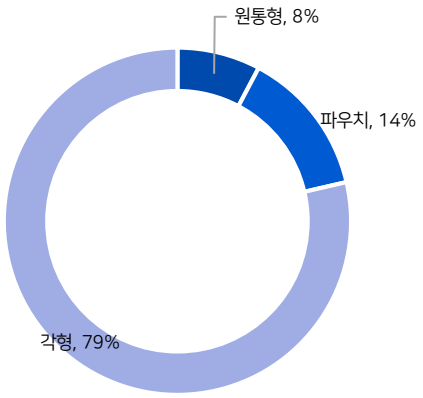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글로벌 EV 배터리 타입별 소요량('25년 1월 및 '26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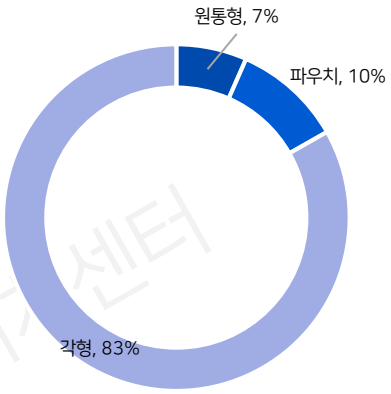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EV 배터리 타입별 M/S('25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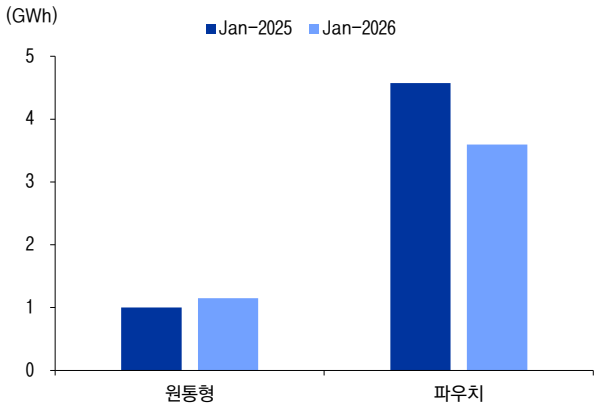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EV 배터리 타입별 M/S('26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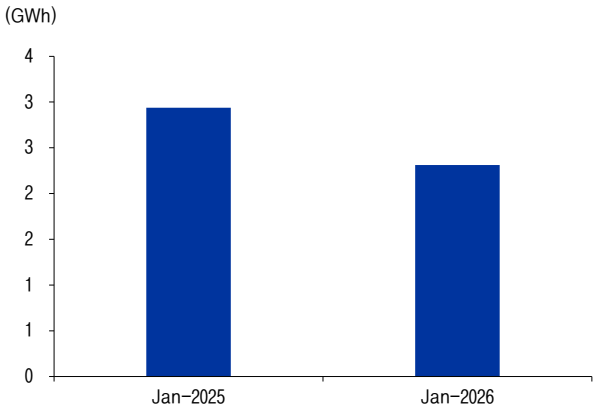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LGES 배터리 타입별 EV향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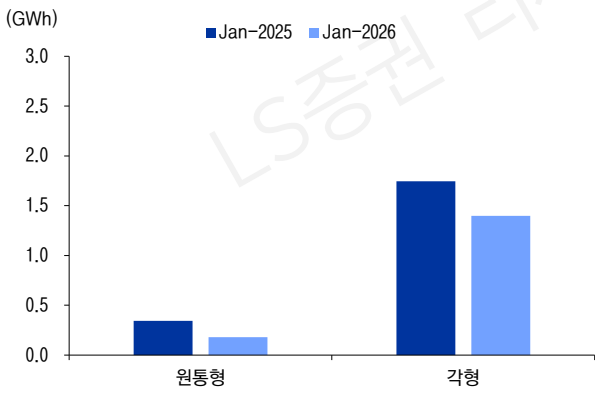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SK On 배터리 타입별 EV향 판매 추이(파우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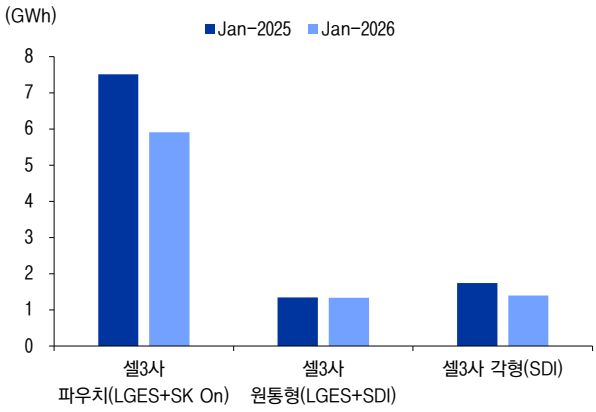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삼성 SDI 배터리 타입별 EV향 판매 추이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국내 셀 3사 타입별 EV향 판매 추이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경희).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8.7% 11.3%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1. 1 ~ 2025.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